

遼, 金과 高麗간의 사신 행차 및 문화 교류

손 호 (孫 昊)

중국역사연구원 고대사연구소

10-13 세기 고대 동아시아의 세계 형국은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중국의 왕조 遼, 宋, 金 등의 정권은 병립하면서 고려를 포함한 역외 정권과 복잡한 외교 관계를 이루었다. 국제 학계는 이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고대 동아시아 세계 질서에서 "다극(多極)" 및 "대등(對等)"의 새로운 형국이 형성하였다고 인식한다. 각 정권은 유가 '춘추' 의리를 근거로 참조하여 전통적인 고전의 '聘問'과 군신 조봉·책봉(封貢) 관계를 결합함으로써 실천을 통해 고대 동아시아 외교의 새로운 유형을 형성하였다. 각국은 맹약(맹세)을 통해 양국 관계("군신" 또는 "적국")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의 법리를 형성하였다. 중국 북부의 왕조 遼, 金 과 조선 반도의 고려는 맹서(誓詔, 誓錶)를 교환으로 정식적이고 안정적인 조공(朝貢) 관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고려와 중국 왕조 遼, 宋, 金 의 정치적 방향을 결정하였고 10-13 세기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국제 정치 질서의 운행에서 볼 때, 왕조 遼, 金 과 고려 사이의 연례적인 사절 교환은 맹국간의 정상적 외교 관계에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각 왕조는 사절활동에서 공의(公儀) 및 사역(私域) 두 가지 부동한 면으로 새로운 문화 교류를 전개하면서 이 시기 동안 동아시아 국제 관계 역사 발전의 뚜렷한 특징이 되었다.

1. 사신행차 제도의 확립

중국 동북 지역의 거란(契丹)과 여진족(女真人)은 遼, 金 왕조를 수립한 후 동아시아 정치 질서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려 하였으며 지리적으로 가까운 고려를 주변 관계 발전의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최초에 고려는 거란과 여진족을 북방의 번이(蕃夷)로 간주하여 경계와 적대적인 태도를 가졌었으며 중원의 오대(五代) 각 왕조 및 그 후 宋 와의 접촉을 선호하면서

북방에서 굴기한 거란을 제압하기 위한 정치적 연맹을 구축하려고 하였다. 송태종(宋太宗)의 옹희북벌(雍熙北伐) 실패 후, 왕조 遼는 점차적으로 동북 아시아 지역에서의 중심 지위를 강화하였고 형세에 몰린 고려는 遼를 대상으로한 宋과의 연대정책을 포기하되 결국 1022년에 遼에게 신복하고 遼의 책봉을 받아들였다. 그후 遼와 고려는 평화로이 발전하여 안정적인 동북 아시아 정치적 구조를 형성하였다. 왕조 遼를 멸망 시킨 金에 대하여 고려도 화의(華夷)사상과 현실적 정치 간의 불일치인 갈등을 겪은 후 실용적인 전략을 택하였다. 1142년에 담판으로 金 왕조와 맹약서(誓詔, 誓表) 체결을 완료하여 金의 책봉을 받아들이고 金과의 조공(朝貢)관계를 확립하였다. 그후 金의 멸망 전까지 양국은 장기간 동안 평화적인 교류 관계를 유지하였다.

정치적인 형태로 보면 遼와 金의 황제와 고려왕은 불평등한 군신(君臣) 관계를 구축하였지만 국가간의 발전면에서 보면 遼, 金과 고려 왕조는 강화(평화)조약과 유사한 맹서관계를 통해 상호 불가침 조약과 선린우호(善鄰友好)의 제도 보장을 확립하였다. 근년에 들어 "東人之文四六", "東文選" 등의 문헌 연구가 깊이 이루어지면서 중한의 학술 분야는 외교 문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하여 이러한 맹서관계의 구체적 형식과 영향을 밝히고 있다. 사실상 遼, 金과 고려의 동맹 관계는 고려와 宋 사이의 교제 과정에서도 존중을 받았으며 北宋은 원풍(元豐) 이후 고려와의 통교를 회복하고 高麗—宋 사신행차의 접대 및 국서(國書) 서레 등 면에서 遼와 고려 간의 동맹 조약을 부정 또는 뛰어넘지 않는다.

연례의 사신행차는 맹약서에 명시된 중요한 의무이다. 遼와 金은 정식 책봉 후 매년 고려에 사절을 파견하는데 四時問候使(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 한 번), 賀正旦使(음력 정월), 賀生辰使(고려왕의 생신) 을 포함한다. 고려 왕 교체 시에는 서자 추모를 위한 치제사(致祭使), 신왕의 기복을 권하는 기복사(起復使)와 정식 책봉을 행하는 책봉사(冊封使)를 파견한다. 고려의 사신행차는 흔히 遼, 金과 대응한다. 고려에서도 賀正旦使、賀聖節使(주로 賀遼帝生辰使、賀遼太后生辰、遼太皇太后生辰使), 치제사(致祭使) 등을 파견하고 遼, 金에서 온 사절에 대응하는 회사사(回謝使)도 파견한다. 이러한 정상적인 선린(睦鄰)관계를 유지하는 사절 외에 고려는 특정한 "세공사(歲貢使)"과 부정기로 "獻方物使"도 파견한다. 이에 遼, 金은 대개 3년마다

횡선사(橫宣使)、횡사사(橫賜使)를 파견하여 고려왕에게 상례 외에 하사함으로 고려에 대한 우대를 보여준다.

2, 사신행차의 외교 예절 및 실제

遼, 金과 고려의 사신행차 과정에서 접대와 알현(覲見) 등의 활동은 정치적 관계의 중요한 상징이며 상호의 임금을 알현하는 의궤(儀軌)와 접대 기준을 정하여 예절 문제와 관련된 교섭 문제를 제기함으로 동아시아 특유의 "빈례(賓禮)" 문화 교류를 형성하였다.

遼와 金의 지배 민족인 거란과 여진족은 장기간 동안 중원 왕조의 정치 문화에 영향을 받았으며 중원을 통치한 이후에 황제 체제를 확립하면서 거의 완전히 유가(儒家) 전통의 "빈례" 외교를 수용하고 고려 사절에 대한 영접(迎勞), 알현(覲見), 곡연(曲宴), 조사(朝辭) 등 부분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遼史"와 "金史"의 의례 규정에서 고려 사절은 본국 왕을 대표하여 주사(奏事), 사은(謝恩), 진봉(進奉) 및 적절한 군신(君臣) 의례를 행하는 것과 사절 개인의 명의로 선물을 올리며 "고려왕국 사은진봉 모관 이하 진봉(高麗國 謝恩進奉某官某以下進奉)"이라 칭 한다고 기록되었다. 고려왕이 遼, 金의 "북사(北使)"를 접대하는 의궤는 상기한 遼, 金의 빈례와 마찬가지로 "천자(天子)"를 중심으로 한 최고의 의례 중심을 보여주면서 분명한 계급과 평화적인 천자-국왕 관계를 드러낸다. 遼, 金의 "북사"가 고려왕과 면회 시의 의례는 각각 다르다. 遼의 경우, 遼의 사절은 고려 국왕의 앞쪽에 앉아 정면으로 고려왕의 절을 받는다. 金은 "천사(天使:천자의 사신)"과 왕 간의 평등한 동료 신분, 즉 신료(臣僚)를 더욱 강조하며 사절은 남쪽을 향해 서고 고려왕은 사절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서쪽을 향해 읍례(揖禮)를 행한다. 즉 사절은 고려왕 옆에서 황제의 조서를 낭독하고 고려왕의 참배를 받지 않는다. 고려왕은 사절을 영접 시 신료간의 "읍례"를 행하고 고려왕은 황제에게 문안, 사절이 조칙을 내리는 과정에서 "배무(拜舞)" 의례를 행한다. 그 후 연회식(宴會儀)에서도 사절과 왕의 평등한 신료 신분의 "상읍(相揖)" 의례를 엄격하게 따르며 일동으로 황제에게 참배를 행한다. 이는 역사책에서 언급된 "사절이 고려에 이르러 국왕과 함께 예를 행한다(使節至高麗, 與王抗禮)"이다.

遼, 金과 고려의 사절들은 군신 빈례의 기본 원칙을 근거로 각자의 임금(황제 또는 국왕)을 위하여 의례 중의 최대 존중을 쟁취한다는 쟁례"争礼"를 행한다. 예를 들어, 고려에서 遼로 행한 고애사(告哀使) 김인존(金仁存)은 遼人들로 하여금 접대 의례를 고려의 국상(国喪)에 존중하고 행렬 연회와 음악을 폐지, 알현 시 길복(吉服)을 입지 않고 춤을 추지 않음을 요구하였다. 고려왕은 遼 황제의 신하이고 이는 신하의 사적 상사(喪事)라서 遼와 金의 조정은 고려왕을 애도와 길례(吉禮)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김인존은 遼人을 설득하여 고려의 국상을 존중하도록 만들어 이로써 그의 사절행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金 왕조의 사절들도 의례의 세부 사항을 중요하게 여기어 황제의 최고 권위를 유지하고자 고려왕과의 쟁례에 기를 쓴다. 1183년에 金 사절인 완안고(完顔高)는 고려 왕 모친상에 치제(致祭)하여 황제의 사절은 제후의모 위패에 절을 아니 행함을 요구하면서 고려왕은 기복(起複)시 길례를 준수함을 요구한다. 이에 여러 차례 교섭을 거치면서 金 사절은 전 사항에 타협하였으나 후자의 기복국왕 시의 상례연의 참석을 거부하였다. 고려 강종(康宗)의 즉위년에 고려와 金 사절은 책봉사가 정문(正門)인 의봉문(儀鳳門)으로 들어오는 여부에 논쟁이 일어나면서 결국 고려는 "신하는 임금의 정문으로 입하려 한다(人臣欲入君之正門)"는 참월(僭越)함을 이유로 하여 강제로 "金 사절은 탄복하여 서문으로 입한다(金使拜服, 乃從西門入)"를 권하였다. 양측은 공통된 빈례 의례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세부 사항에서 논쟁이 존재하였다. 이는 양측의 사절이 유가 예절 체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3. 사신행차 중의 공사(貢賜) 및 무역(貿易)

遼, 金과 고려의 사절 교류 또한 각국 임금의 선물, 대량의 서적, 공예품 등을 주고 받음으로 遼, 金과 고려 문화가 담긴 물품이 이의 과정에서 유통되었다. 이러한 선물 교환은 遼, 金과 고려왕 간의 정치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으며 교환의 상황에 따라 이에 담긴 정치 문화적 의미가 다르다. 전해온 문헌에서는 요 遼, 金과 고려의 사신행차, 접대, 알현 과정에서의 선물 교환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이를 간략하게 해석해 볼 수 있다.

우선, 遼, 金과 고려간에 유지되는 책봉조공(冊封朝貢) 관계는 일련의 여복예기(輿服禮器)에서 나타난다. 遼와 金이 고려왕에게 책봉을 내리면서 흔히 책봉 조서와 함께 여복예기를 하사하였다. 일반적으로는 구류관(九旒冠), 구장복(九章服), 옥규(玉圭), 상로(象輅), 의대(衣櫛), 필단(匹段), 궁전(弓箭), 안마(鞍馬)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물예기는 고려왕의 정치적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뚜렷한 예의성을 가지고 있다. 1212년에 金은 사절을 파견하여 고려 강종의 책봉을 행하면서 고려 광화문보다 4척 높은 상로를 증여하여 고려 측에서 문을 개조하고, 상로를 재단하는 것을 금하였다. 예기는 遼와 金에서 고려로 전달되며 이는 정치 관계를 알리는 중요한 상징이다.

또한, 遼와 金은 다양한 명목의 사절을 통해 상호 임금 간의 상사(賞賜), 진헌(進獻), 회사(回賜)를 행하였다. 예를 들어, 遼와 金 황제는 보통 매 3년마다 고려에 횡사사(橫賜使)를 파견하여 고려 국왕에게 특별한 사물(賜物)을 하사하였으며 이것은 보통의 사물 이외의 특별한 사물로 간주되었다. 그 외 일상적으로 고려는 遼와 金에게 사절을 파견하며 함께 보내는 선물로 금흡병(金吸瓶), 은약병(銀藥瓶), 복두(幘頭), 서조포(紗紵布), 공평포(貢平布), 뇌원차(腦原茶), 대지(大紙), 세묵(細墨), 용수(龍鬚), 등이 있다. 遼 사절로부터의 회사물(回賜物)로는 犀玉腰帶, 細衣, 金塗鞍轡馬, 素鞍轡馬, 散馬, 弓箭器仗, 細綿綺羅綾, 衣著絹, 羊二百口, 酒菓子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遼, 金과 고려의 선물들 대부분은 각각의 특산품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례적인 선물 교환은 遼, 金과 고려 사이의 평화적인 안정적인 관계의 중요한 문화적 상징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遼, 宋, 金과 왕조 시기에는 대부분의 문서 및 서적을 유출금지품으로 분류하여 타국 사절이 이를 가져가는 것을 금하였다. 그러나 遼, 宋, 金은 종종 고려에게 문서-서적을 반사(頒賜)한다. 10세기 이전, 한자로 된 불교 경전들은 주로 손사본으로 전해졌다. 遼와 宋은 대규모로 불교 경전을 간각(刊刻)하기 시작했다. 宋은 983년에 "개보장(開寶藏)"의 각인을 완성하였으며 그 후에는 조판인쇄(雕版印刷) 기술의 보급으로 한자로 된 불교 경전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쉽게 전파될 수 있게 되었다. 10세기에는 宋과 고려가 여전히 서로 사절을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하며 宋에서는 고려에게 "대장경(大藏經)"을 선물로 보내기도 했다. 991년 고려 사절

인 한연공(韓彥恭)이 宋에서 최초로 하사 받은 "대장경"의 각본(刻本)을 고려로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遼는 1060년 전후에 "거란장(契丹藏)"을 간각하고 이를 여러 차례 고려왕에게 하사하였다. 고려는 遼와 宋의 사절 교류를 통해 다양한 각본의 "대장경"을 받았으며 이는 유명한 고려의 "대장경"을 간각하는 데 필요한 문헌 및 판본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 동시에 고려는 당시 중국의 遼, 金 그리고 南北宋 간의 문화 서적 교류 및 전파의 중요한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상기 소개한 내용을 통해 遼, 金과 고려의 사신 행차의 주요 임무는 임금을 대신하여 맹약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책봉, 조공, 정보 전달, 상호 문안 및 의궤, 공사(貢賜), 선물 교환을 통하여 당시의 정치 문화 교류를 완수한 것을 알 수 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맹약서를 바탕으로 한 각방의 사절단은 빈례를 이용하여 원활하게 타국으로 가서 현조, 협의 접대 예의를 행함에 있어 한 사절의 자유로운 외교를 보여준다. 동시에 遼, 金과 고려의 사신 행차는 임금의 대외 정치적 작용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외교 활동으로 사절로서 출사국의 사적 영역에서 문화적 교류활동 경험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4. 외교 사절의 문화 교류

10 세기에 들어,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는 점차 표준적인 사절 접대 및 환송의 예절이 형성되었다. 사절이 국경을 넘으면 전문 접대하는 접반사(接伴使)가 동반하여 수도로 입성하고 숙소에 도착하면 관반사(館伴使)가 접대를 담당합니다. 수도에서 떠날 시에도 반송사(伴送使)를 동반하여 귀국시킨다. 사절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해진 외교 업무 그 외에 수용국과 개인적인 영역에서 독특한 문화 교류 경험을 형성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전하는 문헌인 "동인지문사록(東人之文四六)"과 "동문선(東文選)" 등은 고려의 문신(文臣)들이 작성한 遼, 宋, 金에 대한 "사대표장(事大表狀)"과 "배신표장(陪臣表狀)"을 수록하여 있다. 전자는 고려왕이 遼과 金 황제에게 올린 국서고 후자는 고려 사절단 대사가 "배신(陪臣)"의 신분으로 각 단계에서 金과 宋 접대에 대한 치사문(致謝文)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1204년에 고려가 축금정단사(賀金正旦使) 이연수(李延壽) 및 동반 서기관(書記官) 김극기(金克己) 일련의 사신행차의 세부 사항을 볼 수 있다.

고려 사절은 입국에서 출국까지 金의 접반사, 관반사, 송반사와 함께 이동하였다. 金의 접반사는 고려 사절과 중도 회동관(中都會同館)에 함께 행하여 정단조하(正旦朝賀), 어연(禦宴), 조사(朝辭)에 참석하고 받은 의대(衣對), 안마(鞍馬)에 사례하며 객사(客館), 연회(宴會), 송반사(伴送使) 등에 여러 차례 사례를 한다. 각 단계에서 고려 사절은 대접에 감사의 표시로 사표(謝錶)를 작성한다. "사륙편문(四六駢文)"으로 사례를 주고받는 것은 당시 국제 사절 교류의 관습이었다. 宋의 장세남(張世南)이 기록한 "유환기문(游宦紀聞)"에도 고려사인상(高麗使人狀)이 집에 몇 폭이 남아있는데 이는 선화(宣和) 6년에 고려 사절 이자덕(李資德)과 김부철(金富轍)이 宋으로 행하여 사은-진봉 한 것으로 "사륙문체(四六文體)"로 쓰여졌다. 의례에 따라, 대접을 받은 측도 회답을 해야 한다. 다만, 遼, 金은 전해온 문헌이 결핍하여 보존된 사례가 없다. 지금으로 宋의 문헌을 방증으로 활용한다. 위양(韋驥)의 "전당집(錢塘集)"에는 작자가 명주(明州)에서 고려 사절단과 답변한 서장(書狀) 30여 편이 보존되어 있다.

이러한 외교 내용이 담긴 표(錶), 장(狀) 외에 遼, 金과 고려의 사절(出使者 및 伴送者) 사이에서도 더 자유로운 시문 대화가 진행되며 이는 후세에게 사행문학(使行文學)으로 알려졌고 이와 관련된 사례가 역사 서적에도 다수 담겨있다. 사절들 사이의 시문 화합은 개인의 문화 예술 수준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문화 정서에 대한 경쟁도 포함하며 이러한 면에서는 상대방보다 약한 것을 원하지 않았다. 종종 문화적 수준이 높은 학식 있으며 논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상대국의 존경을 얻고 기본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遼, 金은 흔히 학식이 넘치는 漢人을 고려로 파견하여 교섭한다. 그 중 대표인물로는 바로 金과 고려 맹약담판에 참여한 한방(韓昉), 고려의 관반자 김부의(金富儀)이다. 이 두 사람은 수십 편의 시를 주고 받았으며, 국무 이외에도 서로를 친구로 삼았다.

5. 맺음말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遼, 金 과 고려 사이의 사신행차는 遼, 金과 고려 관련역사 문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문화 교류 활동으로 해당 정치 문화 상호 작용의 여러 측면을 충분히 나타낸다. 정치 문화면에서, 遼, 金의 통치 민족 거란, 여진족이 자신들의 본토 정치 언어를 고려와의 관계

에 용입하지 않았으며 동아시아 전통 한자 문화와 유가 전통 예식을 기반으로 한 조약을 외교 언어로 사용하였다. 다른 면에서, 지리정치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遼, 金이 고품격의 유가 문관들을 사절로 파견하여 고려와 동일한 정치 문화 형식을 사용하여 상호 작용하였다. 이에 고려가 遼, 金에 복종한다는 맹서를 엄격하게 지키게 된 것이고 고려는 자연히 심리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사절은 쌍방 정치 문화 교류의 중요한 연결고리이자 구체적인 실행자이다. 사절 개인의 외교 예절 및 문학적 지식 수준은 그가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그의 임금(황제 또는 왕)의 정치적 위엄을 지킬 수 있을지를 직접적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遼, 金과 고려의 사절 활동은 한 측면에서는 "공(公)"적인 수준에서 준조절충(樽俎折衝)하여 遼, 金과 고려의 외교 예절 문화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고 다른 측면에서는 사절 간의 유연한 개인적 교류가 상류 지식인들 간에 상호 교류를 이어주어 문화 교류 역사에서 중요한 면을 형성한 것이다.